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놔 주는 사랑이 멋진 사랑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생을 할 수도 없지요. 이끌어 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지금 죽으러 가는 데 말입니다, 죽어야 또 새로 탄생을 하죠. 그죠? 이치를 보면.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죽으시라 이겁니다. 허허허. 몸뚱이를 살려 두고 마음이 죽으라 이거예요. 마음이 죽어서 죽은 세상에 가면 전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눈 뜨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고 안에서 보면 바깥이 내다보이는데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 이 심안의 도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보배고 얼마나 귀중한 공부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곤 바깥으로만 살려 달라고 합니까? 글쎄, 얼마나 모자랍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습니다. 나도 모자라는 사람이니까요, 하하하. 생각을 해 보세요. 금방 했다가 금방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자꾸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에 왜 걸립니까? 골이 비었습니까, 걸리게?

또 여러분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집이 여러분을 따라갑디까? 금은보화가 따라갑디까? 몸뚱이가 따라갑디까? 형제나 자식, 부인, 아니면 남편이 따라갑디까? 모두 화장터까지밖엔 안 가 줘요. 그리고 보물은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아요. 또 집은 대문 밖에만 나섰다 하면 내다보지 않는다구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고, 거기서 알고 있는 무상한 그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 그걸 좇아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문화 문명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요, 세계를 조화롭게 해서 평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급하니까 건둥건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건둥건둥한 데에서 단 하나둘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세요. 건둥건둥했지만 아주 우리에게 밀접한 인간 마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한다,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등 모두, 이것은 일체 만법에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만 '너는 왜 나가서 자고 안 들어왔느냐.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너는 빌어먹기밖에 더하겠느냐. 배울 시기에 못 배웠으니 너는 만날 노동이나 해야지.' 이러고 그냥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나는 말로 해서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를 아십니까?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리고 전구는 저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어디 한 군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스위치가 두 개 켤 거, 세 개 켤 거 아주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전체의 스위치는 따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이다 뭐다, 이 전구다 저 전구다 따로따로 생각할 게 하나도 없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저 마음의 주인공과 둘이 아닌 까닭에 이끌어 주고 또 집에 들어오게 하겠지. 당신밖엔 없어. 당신밖에 믿을 게 없어. 내가 누굴 믿어? 허공을 믿어, 이름을 믿어?' 하고 진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먹고 싸고 자고 아프고 죽고 하는 그 다섯 가지는 누가 대신 못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 주인공에 맡겨 놓으시라는 겁니다. '한마음' 이렇게 묶는 것은…, 아, 여러분이 살면서 겪어 보시죠. 여러분이 여기에 교자상 하나를 차려 놓고요, 몇 분만 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아, 초대받지 못한 분이 노하셨단 말입니다. 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서도 또 '요놈, 두고 보자.' 이러거든요, 허허허. 그러지도 않으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그릇 놓고 전부 청하자. 그러면 뭐, 날 나쁘다 좋다, 덜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그뿐인 것을…. '한마음' 해 놓고 '주인공' 하면 한마음이 모여서 기둥이 돼 가지고 하늘을 꿰고 땅을 디뎠는데 뭐가 탈이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를 잘못해서 탈이 나고 뭐가 잘못해서 탈이 나고 조상이 잘못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탈이 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도리를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아들이 안 들어온다 누가 안 들어온다 이러는 것도 말로 하지 말고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저 애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남편도 안되걸랑 '한마음 주인공만이 우리 남편을 이끌어 주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믿고 놓으세요. 그렇게 안으로 찾는 거는 공덕이 되지만 바깥으로 아무리 돈을 놓고 기도를 해 보고 해 보세요, 공덕이 되나.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말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기도로는 아마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인가 해 보세요, 모두. 한번 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다면 내가 머릴 왜 깎아요? 네? 내가 골이 비었습니까?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할 거를 아, 지금 진실한 말만 해도 다 못 할 텐데, 아니, 왜 가짜 짓을 합니까? 그게 얼마나 골이 빈 짓입니까. 그리고 괴롭고요. 돈 벌려니 괴롭고, 돈 봉창에 넣으려니 괴롭고, 넣으면 넣은 대로 괴롭고. 아이구, 이거 얼마나 골 빈 짓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참, 여러분한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살아라.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거기밖에 감사한 데가 없다." 이러는 것은 '재산을 버려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누가 돈을 다 버리랬나요? 올바로 쓰는 것이 벌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 같이 가 주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쓸 데다 쓰고 적절히 산다 이겁니다. 손을 펴고 오므릴 줄 모르면 반병신이죠? 또 주먹을 쥐었다가 펼 줄을 모르면 또 반병신입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쥐었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줄 알아야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구요, 불자! 뭐,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불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불(佛)'이니까, 바로 여러분 몸은 '자(子)'니까 불자지요, 불자. 그대로 불자네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식이죠.

두서없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여러분은 앞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듯이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게 본래자성불이라는 겁니다. '내 한마음의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내 가정을 이끌어 갈 수가 있고, 병고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낫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하고서 감사한 것도 거기요, 모두 거기니까 거기에 감사하고 가시다 보면 바로 감사하다고 할 놈도 없고 감사를 받을 놈도 없고,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서없이 말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하하….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생각은 있겠죠.

발이 많이 달린 돈벌레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렇게 다리가 많은데 걸림 없이 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다리가 많은데 이날까지 걸림 없이 다녔거든요. 하하하. 그런데 그 돈벌레가 '다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걸리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한 발짝도 떼어 놓지 못하게끔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다시 '이거는 모두가 한 다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가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요것조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마음', 누구를 막론하고 그냥 '한마음 주인공' 이러면 됩니다. 그럭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49년 설하신 그 골수의 뜻을 아실 겁니다, 아마. (중략)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 보배가 능히 이 세상을 다 쥐고도 남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죠. 만공봉의 연꽃은 부처님의 설이지만, 깊은 물의 용무는 그저 한바다를 들이키고 토하고 들이키고 토하고, 내고 들이는 데에 그것이 바로 문수, 법신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소립니다.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마음이 마음을 일으키니까 법이 되고, 마음을 내면 몸은 움죽거리는 거니까 화신이죠. 자꾸 변동해 가면서 움죽거리니까요.

그래서 변동해 가면서 움죽거리면서 모두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것이 보현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보십니까? 지신도 나요 용신도 나요,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닥치는 대로 바로 나 아닌 게 없습니다. 신중도 나요 약사도 나요 부처도 나요, 모두 나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한 거죠. 나 아님이 하나도 없어서 나도 없고 다 없는 거죠. '무(無)'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했다고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니라' 했던 겁니다. '색이 즉 공이요, 공이 즉 색이니라'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불교를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손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길러 주세요. 어디 나가실 때는 냉장고 문에다가 편지를 붙여 놓고 가 보세요. 종이에다 뽀뽀를 해 가지고 "아무개야, 널 사랑해.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넣은 거 꺼내 먹고 너 요렇게 요렇게 있어." 그러면 그 글을 읽고는 '호호호, 엄마도!' 그러고선 이탈되지도 않고 엄마가 올 때까지 아주 착실하고 즐겁게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쓰신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이탈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불어넣어 주지도 않고, 뿌리를 싱싱하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만날 잎만 붙들고 가지만 붙들고 흔들어 봤자 낙엽만 지죠. 그냥 화가 난다고 가지를 꺾어 버리고 이파리를 떼면서 온통 야단을 하니까 그 자식은 그렇게밖엔 될 수 없죠. 장관을 해먹을래도 부모들 때문에 못 해먹게 되는 수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진실히 생각하시고 부드럽게 말해 주세요. 여자가 나가서 난봉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또 남자가 난봉을 부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보, 좀 피곤하셨겠소. 그러니까 이거나 잡숴 보쇼." 그러고선 평소처럼 웃으면서…. 아니, 꽃이 많은데 말이오, 나비가 한두 군데 뭐, 이쪽저쪽에 가서 앉는데, 그것도 꿀 때문에 그러는 거지 꿀이 아니라면 그럴 리가 없지요. 하하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버리고, 다 홀딱 내버리고 몸까지도 내버리고 갑니다. 더우면 시원한 것, 추우면 뜨뜻한 것 입혀 가면서 씻어 주면서 발라 주면서 온통 쓰다듬고 했는데도 몸이 자기 좇아가던가요? 안 좇아가죠. 그러니까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다 벗고 갈 몸뚱이, 한 발 한 발 디딜 몸입니다. 그러니 마음공부나 잘하세요.

요다음에 또 그렇게 태어나 가지고는 깡통끼리, 또 자식과 부모 깡통끼리 만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부딪치지…. 아, 소리가 얼마나 나요, 깡통이? 넝마는 넝마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난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러니까 만날 끼리끼리 만나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은은 은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나고 넝마는 넝마대로 만나는데 누구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판사판이에요. 어차피 그럴 일이라면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그러세요. 그까짓 거 얼마나 살다가 갈 거라고 그렇게 애탄지탄 덜그렁대며 살아요? 진짜 사랑을 한다면 탁 놔 주는 그 사랑이 멋진 사랑이죠!

오늘부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절대 믿질 마세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위로는 조상의 묵은 빚을 갚을 것이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바깥에서 그렇게 극매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묵은 빚도 갚을 수 없고 햇빛도 줄 수 없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아주! 오늘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를요. 감사합니다.

> 주인공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고 살아라.
> 거기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 거기밖에 감사한 데가 없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6월 28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음이 향기를 내는 책, **법보시 주문**은 02)732-152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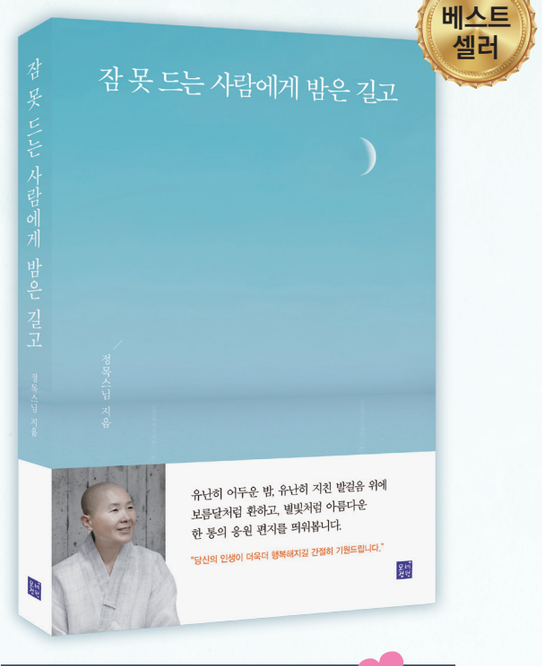
베스트 셀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막막하고 불안하고 외로운 당신에게,
정목스님이 내미는 따뜻한 손길 같은 이야기들

잠도 안 올 만큼 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인생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선택할지 기쁨을 선택할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지요.
식당에 가서 원하는 음식을 결정하듯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도 스스로 결정합니다.
기쁨을 원하면 사랑을, 고통을 원하면 미움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용서와 화해로만 풀 수 있지요.
그 용서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잘 용서가 안 된다면 우선 상처 준 그를 향해 이렇게 속삭여보세요.
"나와 똑같이 저 사람도 삶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정목 스님 낭독 -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이 책의 저자 인세 수익금 전액은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에 희사합니다.

정목 지음 / 248쪽 / 14,000원⇨ **12,600원** (배송비 별도)

모네의 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